

2001. 6. 17. 경남

01 1920년대의 3대 동인지 중 하나인 '폐허'의 동인이 아닌 사람은?

- ① 김억                      ② 황석우                      ③ 염상섭  
④ 오상순                      ⑤ 노자영

노자영은 최초의 시 전문지인 '장미촌'의 동인이다.

다음 중 발음이 잘못된 것은?

- ① 사 : [시웃]    ② 자 : [지웃]    ③ 트 : [티글]    ④ 커 : [키웁]    ⑤ 허 : [히웁]

③ 트 : [티을]

다음 시조집에서 발간 연대가 가장 늦은 것은?

- ① 병와가곡집                      ② 청구영언                      ③ 해동가요  
④ 가곡원류                      ⑤ 고금가곡

청구영언(영조 4년) ⇨ 해동가요(영조 39년) ⇨ 고금가곡(영조 40년) ⇨ 병와가곡집(정조) ⇨ 가곡원류(고종 13년)

04 '阿諛'의 독음으로 맞는 것은?

- ① 아첨    ② 아부    ③ 가침    ④ 아류    ⑤ 아구

阿諛 : 아첨

수난 이대'에서 부자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 ① 개인적 상처                      ② 우리 민족의 수난사                      ③ 인간고의 승화  
④ 본능적 유랑 의식                      ⑤ 부자 간의 혈육 확인

'수난 이대'는 일제의 징용으로 팔을 잃은 아버지와 6:25에 참전하여 다리를 잃은 아들 부자 이대의 연속되는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수난의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06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관념은?

天塹根근을 못내 보와 滄茫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짓거 내어 六육습합의 느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塹의 白빅雪설은 므스 일고.



## 10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시어는?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 )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鐘路)의 인경(人聲)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鼓)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① 백두산                      ② 지리산                      ③ 도봉산  
 ④ 삼각산                      ⑤ 금강산

심훈의 ‘그 날이 오면’: 의기가 넘치는 강건한 남성적 어조로, 조국 광복에의 간절한 염원을 읊은 시다.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시적 균형성을 잃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민족 해방을 향한 강렬한 애국적 열정이 호소력 있게 전달된다. 이 시는 서로 대응하는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연의 ‘그 날이 오면(가정적 미래)’이 2연에서 ‘그 날이 와서(가정적 현재)’로 변화되고, 1연의 ‘삼각산’과 ‘인경’이 2연에서 ‘육조’와 ‘북’으로 변화되고 있다.

## 다음 중 합성어가 아닌 것은?

- ① 맏아들                      ② 집안                      ③ 늦잠  
 ④ 춘추                      ⑤ 소나무

① ‘맏아들’은 ‘맏(집두사)+아들(명사) ⇨ 맏아들(파생 명사)’로 파생어이다.

②는 ‘집+안’, ③은 ‘늦(다)+잠’, ④는 ‘춘(春)+추(秋)’, ⑤는 ‘솔+나무’로 모두 합성어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2~13)

한 민족의 전통은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하다, 고유하지 않다 하는 것도 상대적 개념이다. 어느 민족의 어느 사상(事象)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고유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종교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꼭 동일한 양상으로 발전되는 법은 없으며, 문화, 예술은 물론이고 과학 기술조차도 완전히 동일한 발전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이 다 고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한 민족이 창조하고 계승한 문화나 관습이나 물건이 완전히 고유하여, 다른 민족의 문화 내지 전통과 유사점을 전연 찾을 수 없고, 상호의 영향이 전연 없는 그런 독특한 것은, 극히 원시 시대의 몇몇 관습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윗글의 주제는?

- ① 전통 계승의 방법                      ② 전통 계승의 목적                      ③ 전통의 의의
- ④ 전통의 재구성                          ⑤ 전통의 본질

제시된 글은 전통이 고유성을 지닌다는 전통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고병익의 '전통과 창조'에서)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의견을 위주로 한 글
- ② 사실과 지식을 제재로 하는 글
- ③ 논지가 일관되고 뚜렷한 글
- ④ 글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글
- ⑤ 추상적 개념을 논거에 의해 증명한 글

제시된 글은 논설문에 해당하는데, ④는 감상문에 대한 설명이다.

### 다음 중 달거리 형식의 효시작은?

- ① 동동                                      ② 정과정                                      ③ 청산별곡
- ④ 쌍화점                                   ⑤ 가시리

- ① 월령체(달거리 형식) 노래의 효시로, 다달이 변화하는 자연과 풍습에 따라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다.
- ② 정서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 의중을 연모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충신 연주지사. 유배 문학의 효시로 곡명은 '삼진작'이며 국문으로 표기된 10구체 향가계 고려 가요이다.
- ③ 현실 도피적 생활과 삶의 고뇌를 노래했다.
- ④ 퇴폐한 성 윤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유녀(遊女)의 노래이다.
- 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으며, 일명 '귀호곡(歸乎曲)'이라 한다.

### 총괄된 문장이 없이 바른 문장은?

- ① 그는 영어를 잘 하였으므로 전쟁 중 통역을 맡았다.



겨울나무와 /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① 돌층계                      ② 눈물                      ③ 바람  
④ 하늘                        ⑤ 자갈밭

‘순수의 얼음꽃’과 ‘승천한 눈물’은 동격으로 ‘눈물’을 의미하는데, 이 눈물은 ‘백설’과 함께 순수의 상징이다. (김남조의 ‘설일’)

## 20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① 주체성                      ② 창조성                      ③ 고유성  
④ 비판성                      ⑤ 객관성

제시된 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의 창조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이기백의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서)

